

2011년 F/W 여성복컬렉션에서 나타난 과장형 재킷의 디테일별 분석

이 세 중 · 광 태 기*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과장은 일반적으로 물체가 가진 고유의 형태에서 벗어나 확대되어진 것을 말하며, 과장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복식에서의 과장은 대체로 실루엣의 과장을 의미하는데, 즉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신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복을 말한다. 과거 부유 혹은 신분상징의 도구로써, 칼라, 어깨, 소매, 스커트 등을 강조시켰다. 특히 여성의 복식에서, 신분이 높을수록 호화롭고 사치스러웠으며 착용하기 불편했다. 그리고 신분이 낮을수록 검소하였고 형태가 간소화되어 착용이 간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복식형태를 이룬다. 과장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신분을 나타내기보다는, 점차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2011년 여성복컬렉션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과장요소가 '어떻게, 왜' 다른지 분석해 보고, 과장형 복식이 사회적 배경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르네상스 시대이후, 아위클래스 실루엣의 과도한 과장을 보편적으로 하였으며, 이렇게 과장을 한 이유는 상류사회 사람들의 부와 계급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대는 계급이 사라진 평등사회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루엣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렌드와 각자의 개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요소에서, 다양한 소재와 컬러, 디테일로 과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어: 과장, 재킷, 디테일, 여성복, 컬렉션

I. 서론

과거 복식에서는 부유 혹은 신분상징의 도구로써, 칼라, 어깨, 소매, 스커트 등을 강조시켰다. 특히 여성복식에서는 신분이 높을수록 호화롭고 사치스러웠으며 착용하기 불편했다. 이러한 현상은 로코코시대에 들어서면서 강해졌다. 로코코시대의 복식은 왕실과 귀족계급의 기풍을 과시하여, 호화롭고 형식을 중시하는 바로크 시대의 복식의 영향을 받아 장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화려함의 정점을 이룬다. 이 시대 전반에는 의상 한 벌에 레이스, 꽃, 깃털, 리본 등의 모든 장식요소가 사용되었다. 허리를 코르셋으로 조여 가냘픈 여성미를 나타내면서 험은 파니에(panier)로 크게 부풀렸고 머리장식과 화장이 매우 화려했다.

상류사회의 여성복식에서는 모든 부분에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소매, 힙, 스커트 부분을 과장하여 호화롭게 치장하였으며, 과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리를 조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노동이 요구되는 신분이 낮은 여성복식은, 활동이 편해야 했기 때문에 형태가 간소화되어 검소한 차림이었으며 착용이 간편하였다.

동양에서 남자는 소매의 통을 크게 하거나, 색의 사용으로 신분의 상하를 나타냈고, 여자는 버팀대 대신 무지개치마와 대습치마 같은 속치마를 여러겹 입어 치마를 부풀리고 가채를 올렸으며 장신구를 사용하였다.²⁾ 반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저고리, 적삼, 치마, 바지, 속곳, 고쟁이, 짚신이 고작이었다. 이렇듯 과장의 복식현상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양상의 복식유형을 갖고 있다.

과거의 복식에서 과장된 형태는 부의 상징을 나타낸다. 그 예로 1980년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경제적 호황기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대되고 생활수준과 소득이 향상되면서 소재가 더욱 고급화되고, 부에 대한 관심과 여가의 증대로 캐주얼과 스포츠웨어가 유행하게 되었

다. 이 시기에 빅 룩(big look)이 출현하면서 어깨가 과장되고 크고 험렁한 패션이 주를 이루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여피족이 등장하였고, 넓은 어깨가 특징인 재킷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40년대를 대표했던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이 복고풍 패션의 파워 룩(power look)으로 재등장하였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파워 룩은 과장된 어깨와 강조된 허리로 이어지는 역삼각형 실루엣을 나타내는 복식 형태가 특징이다.³⁾

과장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신분을 나타내기 보다는, 점차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현대사회 속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간다. 또한 미디어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전 세계가 패션 유행 흐름의 영향권에 놓여 있게 되었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것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다.⁴⁾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1980년대의 과장된 의복형태가 2009년에 다시 유행하면서, 어깨가 과장된 재킷인 파워숄더 룩(power shoulder look)을 선보였다. 2009년부터 과장된 요소들이 현대의 트렌드와 함께 재정립되어 디자인 된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고, 구매 욕구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과장된 복식이 어떻게 출현되었는지 살펴본 후, 현대에는 재킷을 어떻게 과장되게 표현하였는지를 중점으로 고찰한다. 현대패션에 과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대패션의 시점은 2011년 F/W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문헌자료와 선행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출된 사진자료와 여성복에서 나타난 과장된 재킷의 이미지를 시각자료로 이용하였다. 선별된 376개의 이미지 중 최종적으로 344개의 이

미지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요소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의

과장(exaggeration)은 일반적으로 물체가 가진 고유의 형태에서 벗어나 확대되어진 것을 말하며, 과장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⁶⁾ 복식에서의 과장은 대체로 실루엣의 과장을 의미하는데,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신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복을 말한다.⁷⁾ 과장형 복식은 과장된 실루엣을 얻기 위해, 이상적인 황금비율과 인체의 균형을 파괴하고 왜곡하여 원하는 부분을 강조한다. 과장은 착용의 불편한 요소도 포함하며, 소재와 트리밍 등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부분을 가미하여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유행(trend)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을 말한다.⁸⁾ 유행은 패션에서 절대적인 것이며, 유행은 과거의 어떠한 양식이 현대에 조금 다른 형태로 보여진다. 과거의 양식이 현대에 다시 나타날 때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와 사회적 배경, 과학기술 발전 정도 등 다양한 측면이 결합되어 다시 정립된 새로운 모습의 스타일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재킷(jacket)은 일반적으로 허리길이까지 오는 소매 달린 상의의 총칭이다. 하의와 한 벌로 된 것이나 단독의 것이 있으며, 보통은 앞트임 혹은 풀오버 형식의 것도 있고, 겹웃이지만 매우 광범위

한 의미를 갖고 있다.⁹⁾ 재킷의 일반적인 형태는 짧고 몸에 밀착됐으며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에는 튠릭(tunic)의 형태로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명칭이 붙여졌다. 남자들이 주로 입었고, 19C까지는 유행을 따르는 의복으로 일반적인 복장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⁰⁾ 여자들을 위한 재킷은 19C경에 다양한 스타일이 고안되었으며, 다양한 색채와 소재, 스타일로 현대에도 애용되고 있다.

재킷의 종류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고, 재킷의 명칭은 럼버 잭(lumber jack), 레더·재킷(leather jacket), 리퍼(reefer), 미디·재킷(middy jacket), 볼레로(bolero), 블루종(blouson), 베스트(vest), 박스·재킷(box jacket), 블레이저 코트(blazer coat), 스펜서(spencer), 아노락(anorak), 웨스킷(weskit)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스트와 웨스킷처럼 소매가 없는 재킷의 종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재킷의 종류
(출처: 「패션사전」, 1991, p.175)

2. 복식에서 과장되는 요소별 형태

의복은 선, 형태, 색, 재질, 디테일 등에 대한 개별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의복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이런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¹¹⁾ 본 연구에서는 디테일(detail)의 특성을 중점으로 형태적인 특성을

<표 1> 실루엣의 분류

분 류	종 류
사각형 실루엣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 박스(box) 실루엣, H라인(H-line) 실루엣, 튜블러(tubular) 실루엣
삼각형 실루엣	텐트(tent) 실루엣, 트라이앵글러(triangular) 실루엣
타원형 실루엣	배럴(barrel) 실루엣, 벌룬(balloon) 실루엣, 스피들(spindle) 실루엣
X자형 실루엣	아워글라스(hourglass) 실루엣, 프린세스(pincess) 실루엣, 피트 앤드 플레어(fit and flare) 실루엣

살펴보려 한다.

1) 실루엣(silhouette)

의복에서 실루엣은 내부 장식을 검게 칠하였을 때 인식되는 외곽선을 말한다. 실루엣을 윤곽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외형선, 음영이라 하여 그림자라는 뜻이 있다. 이와 같이 실루엣은 내부의 구성선이나 장식적인 요소들을 무시한 외형을 말한다.¹²⁾






실루엣은 크게 사각형 실루엣, 삼각형 실루엣, 타원형 실루엣, X자형 실루엣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사각형 실루엣의 특징은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바스트(bust), 웨이스트(waist), 힙(hip)을 강조하지 않고 어깨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는 간단한 형태이다.

삼각형 실루엣의 특징은 허리를 피트(fit)시키지 않은 것이며, 타원형 실루엣의 특징은 가슴과 배 부분을 부풀리고 밑단이 좁아진 것이다.¹³⁾ X자형 실루엣의 특징은 허리를 좁게하고 밑단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거나 가슴부분이 넓어지는 실루엣을 말하며,¹⁴⁾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칼라(collar)

칼라는 본래 원통 모양의 목을 감는 것의 총칭이며, 얼굴에서 가장 가깝고 인체 최대의 오목부분인 목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장식상 조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중요하다.¹⁵⁾ 칼라는 디테일의 한 종류로써, 재킷에서 과장의 요소로 많이 쓰

<표 2> 과장형 칼라의 종류와 특징

그림	종 류	특 징
	프릴 칼라 (frill collar)	잔잔한 주름의 칼라를 말하며, 러플 칼라와 비슷하나, 주름이 좀 더 세밀하다. 프릴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기 위한 요소로 쓰인다.
	플리츠 칼라 (pleats collar)	좁게 접혀진 여러 개의 주름으로 칼라에서는 주로 한 방향으로 표현한다. 주름의 폭으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러플 칼라 (ruffled collar)	러플칼라는 프릴칼라보다 더 큰 주름으로, 패턴은 달팽이 모양이 된다. 곡이 심하면 주름의 물결이 크고, 곡이 약하면 물결이 작아지는 장식을 말한다.
	셔링 칼라 (shirring collar)	적당한 간격을 두고 원단을 재봉틀로 봉제하여 밑실을 당겨서 원하는 모양으로 줄이는 방법으로서, 실을 당기는 양에 따라 셔링의 조밀도가 달라진다.
	자이언트 칼라 (giant collar)	네크라인에서 웨이스트라인까지의 큰 칼라를 말한다. 오버사이즈 칼라(oversize collar)라고도 하며, 재킷이나 코트 등에서 과장의 요소로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칼라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3) 소매(sleeve)

복식에서 소매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팔은 인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자유적인 동작이 가능한 부위이기 때문이다. 소매는 미적으로도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 부위이고 넓고 긴 소매는 권력의 상징이며, 여유와 엄숙함을 나타는 것으로서 상류층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용하였다.

또한 소매는 의복 전체 디자인의 분위기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매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¹⁶⁾ 소매도 디테일의 한 종류로써, 재킷에서 과장의 요소로 많이 쓰이는 소매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4) 소재(fabric)

소재는 패션 제품의 근본이 되는 재료이며 재질감은 주로 촉각과 시각에 의해 얻어지는 소재의

<표 3> 과장형 소매의 종류와 특징

형 태	종 류	특 징
	퍼프 슬리브 (puff sleeve)	퍼프 슬리브는 어깨부위를 과장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다. 암홀을 봉제할 때 몸판의 어깨부위는 1.5cm정도 깎아주고, 소매부분의 디자인에 따라 개더(gather)를 준다. 그러면 소매의 어깨부위가 살짝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준다. 퍼프 슬리브가 더 커지면 발룬 슬리브(balloon sleeve)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모두 퍼프 슬리브라 통칭하고 있다.
	턱 슬리브 (tuck sleeve)	턱 슬리브는 퍼프 슬리브보다 더 크게 표현하기 용이하며, 이 슬리브 또한 암홀과 봉제할 때, 몸판의 어깨부위를 1.5cm정도 깎아주고 봉제한다. 소매 암홀이나 소매부리에 몇 개의 주름을 잡는 소매이며, 요크의 절개선이나 프린세스라인과 만나는 점에 맞춰 턱을 잡아주면 더욱 정갈한 느낌을 주면서 과장을 나타낼 수 있다.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lag of mutton sleeve)	레그 오브 머튼이란 명칭은 양의 다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졌다. 이 슬리브는 소매산에 개더나 플리츠(pleats)를 잡아 넣어 상단부는 풍성하게 하고, 소매부리도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소매이다. 이 슬리브는 르네상스시대 복식에 잘 나타나 있다.
	러플 슬리브 (ruffle sleeve)	러플은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요소로 쓰인다. 옷의 가장자리나 소매의 절개부분 레이스나 천을 개더하거나 플리츠하여 넣어 봉제한다. 그리고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위해 원단위에 봉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장식한 것을 러플이라고 한다.
	드레이프 슬리브 (drape sleeve)	드레이프는 주름을 드리우거나 느슨한 주름으로 가린다는 뜻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은 부정형 주름을 말한다. 이 슬리브는 평면패턴보다는 입체패턴으로 제도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보통 드레스에서 많이 사용하나 요즘에는 재킷에도 과장의 요소로 많이 쓰인다.
	파워 숄더 슬리브 (power shoulder sleeve)	재킷에서 과장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어깨이다. 패드를 넣어 어깨를 솟게 하거나, 어깨의 길이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늘려 어깨를 강조하고 허리를 조여,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을 더욱 날씬해 보이게 하는 슬리브이다.

표면적인 느낌을 말한다. 패션의 스타일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소재의 선택이 필요하다.¹⁷⁾ 건축에서 설계시에 건물의 구조를 이루는 자재를 정하는 것과 같이 의복에서도¹⁸⁾ 소재의 선택은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실루엣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느낌과 표정을 가진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의 의복에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흥미롭고 변화 있는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다.¹⁹⁾ 소재가 전달하는 느낌은 심리적인 요소로 소재는 의복에 의해서 고상한, 혹은 쾌활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보기에 두껍고 무겁고 뻣뻣하며 볼륨감 있는 직물은 크기와 무게감을 더하며 체형의 윤곽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두드러지는 뻣뻣한 직물은 몸매에 볼륨감을 더하고 큰 체형을 더 크게 보이게 하며, 왜소하고 마른 체형의 경우에는 체형을 압도하게 된다. 반면에 얇고 부드러운 직물은 몸매에 달라붙게 되어 모든 굴곡과 골격이 잘 드러나게 된다.²¹⁾

3. 과거에 사용된 과장형 복식

고대 시대에는 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의 원단을 어떠한 형식에 맞춰 두르거나, 어깨에 느슨하게 걸쳐 입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중세시대부터는

기독교가 전반적인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인위적인 과장이 시작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19C 이전에는 여성복에서 재킷을 주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세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 과장된 복식의 전체적인 흐름을 연구해 보았다.

1)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정신적 가치를 최고로 여겨 건축 및 문화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면서 고딕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신에 대한 존경심과 영광, 신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자 하는 신앙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염원으로 하늘을 향해 수직적으로 전개 되었다.

중세의 복식은 수직적인 선의 원리와 평면성이 특징으로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의 의미에서 신체 전체를 감싸는 형태였다. <그림 2>에서처럼 어느 정도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여 오히려 주의를 끌지 않고 신체를 더욱 은폐시켰다.²²⁾ 복식에 고딕건축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신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직 지향적인 과장이 <그림 3>에서처럼 의상에 반영되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그림 2>
우플란드, 1410-1430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010, p.152)



<그림 3>
V자형 네크라인과 수직 방향의 원추형모자 애닝, 1430년경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010, p.153)



<그림 4>
원통형 스커트 버틸대를 착용한 스타일, 1600
(출처: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2010, p.145)



<그림 5>
르네상스 시대의 러프칼라와 머리장식, 1590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010, p.192)



<그림 6>
바로크 시대의 부드러운 형태의 로브, 1633-1635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010, p.209)



<그림 7>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과 파니어로 부풀린 로브, 1770
(출처: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2010, p.194)



<그림 8>
나폴레옹 황제의 두 번째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가 입은 엔파이어 드레스, 1812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010, p.287)



<그림 9>
로맨틱 스타일의 드레스. - 르댕고트, 1830
(출처: 『패션사전』, 1991, p.58)

2) 근세시대

(1) 르네상스시대(Renaissance ages)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에서는 “재탄생”을 뜻한다. re-는 “다시, 거듭”이며, nascere는 “태어나다”를 뜻한다. 문예 부흥(文藝復興), 학예 부흥(學藝復興)은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예부흥 운동을 말한다.²⁴⁾ 보다 구체적으로는 14~16세기에 걸쳐 중세 기독교 문화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학문과 세계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을 의미한다.²⁵⁾

르네상스시대에는 신체의 관능적인 미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 부피를 크게 늘려 과장된 아워글라스 실루엣을 이루었는데, 소매에 부풀리는 패드를 넣음으로써 이 실루엣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다.²⁶⁾ <그림 4>에서처럼 귀족들은 패드(pad), 코르셋(corset), 파딩게일(farthingale)을 이용하여 실루엣을 최대한 과장하고, 위엄과 권력의 과시를 위해 보석이나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르네상스의 커다란 특징은 러프칼라(ruff collar)에 있다. 이 시대에는 <그림 5>에서처럼 얼굴과 목이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칼라를 과장하였는데, 이러한 러프칼라는 권위와 위엄의 상징

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머리에 가까운 목 부분을 장식하여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미의 추구로 볼 수 있다.²⁷⁾

(2) 바로크·로코코시대(Baroque·Rococo ages)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 유럽의 정세는 크게 변화했다. 먼저 독일지방의 종교분쟁으로 시작된 30년 전쟁(1618~1648년)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자, 유럽 전역은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다.²⁸⁾ 그래서 종래의 호화로운 복장보다는 네덜란드인들의 실용적이고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복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복식은 과장형 복식이 감소하게 되었지만,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귀족과 왕족은 <그림 6>에서처럼 보석과 같은 장신구들의 과잉착용으로 인해 더욱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이 특징이다.

바로크시대의 거대하고 화려한 복식은 로코코 스타일의 섬세하고 우아한 곡선미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며,²⁹⁾ 로코코의 예술양식은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하여 번져나가 각지에서 제각기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하였다.³⁰⁾ 살롱은 루이 14세가 집권했던 16세기 중엽에 생겼으며 부유한 시민들의 쾌적한 사교장으로 변형했고, 중산계급이 확산되었던 로코코 시대에는 부유한 상류층



<그림 10>
크리놀린 스타일의 드레스, 1852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010,
p.314)



<그림 11>
엉덩이가 강조된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 1886
(출처: 『패션사전』, 1991, p.128)



<그림 12>
아르누보 스타일의
아르누보 실루엣, 1895
(출처: 『패션사전』, 1991,
p.126)



<그림 13>
아르누보 스타일의
S-커브 실루엣, 1901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2010, p.343)

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살롱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로코코시대에는 <그림 7>에서처럼 많은 장식과 단단하게 조여낸 코르셋, 옆으로 최대한 과장된 스커트, 거대한 머리장식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드러내고 나아가 장식적인 복식을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³¹⁾ 이처럼 허리를 코르셋으로 조이고 스커트는 버팀대로 부풀리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의 형태는 르네상스시대부터 시작되어 로코코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3) 근대시대

근대시대의 특징은 격심한 변화에 있다. 이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은 두 가지의 혁명이며,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혁명으로 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³²⁾ 19세기의 복식은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스타일이 바뀌는데,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로 나뉘 볼 수 있다.

엠파이어 스타일은 <그림 8>에서처럼 허리선을 가슴 바로 밑으로 올려 가슴을 강조했으며, 가늘

고 긴 실루엣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아이템은 슈미즈 가운(shemise gown)이다. 대체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의 곡선을 그대로 나타내려는 경향이 강해, 추운 겨울에도 가슴라인을 깊게 파고,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로맨틱 스타일의 특징은 루이 18세가 복귀하면서, 로맨틱한 의상이 다시 유행하였다. <그림 9>에서처럼 X자형 실루엣이 부활하였고,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과 많이 비슷하여 신르네상스 스타일(Neo-Renaissance style)이라고도 한다. 크리놀린 스타일은 <그림 10>에서처럼 과장된 스커트단을 그 특징으로 하여 로맨틱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데콜레테(decollete), 레이스, 리플, 트리밍 등의 세부장식이 가해졌으며 화려로운 옷감을 사용하여 매우 화려했다.³³⁾

버슬 스타일시대에는 산업이 발전되고 기계생산의 발전에 따라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복식에도 영향을 주어 <그림 11>에서처럼 스커트 폭이 축소되고 스커트의 여유분이 뒤로 모아지면서 버슬 스타일로 변화였다.

아르누보(Art Nouveau)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미술공예운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공

폼·가구·보석·건축 등의 생활미술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나타났으며, 여성의복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지나친 장식을 줄이고 곡선의 식물 문양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흐르는 듯한 곡선의 실루엣을 낳게 했다.³⁴⁾ 이 시기 복식의 특징은 <그림 12>에서처럼 허리를 조이고, 소매를 과장되게 부풀려 강조하는 아워글래스 실루엣과 <그림 13>에서처럼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한 S자 커브실루엣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 1) 컬렉션에서 나타난 재킷의 과장을 부위별로 빈도수를 알아본다.
- 2) 컬렉션별 과장형 재킷을 활용한 브랜드와 아이템의 빈도수를 알아본다.
- 3) 컬렉션에서 나타난 과장형 재킷의 경향을 형태별과 소재로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2011년 F/W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의 여성복컬렉션에서 나타난 과장형 재킷이다. 그리고 트렌드와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신체를 왜곡하고 과장된 요소가 확실한 옷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퍼스트뷰코리아의 웹사이트와 각종 컬렉션을 이용하여 문헌조사 하였다. 그 결과 총 376개의 과장형 재킷을 찾아냈으나, 기준에 안 맞는 32개를 제외한 344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 과장을 활용한 모든 재킷을 설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연구자의 주관으로 치우쳐져 쓰일 수 있는 디자인 분석연구

를,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통계를 기초로 연구해 보았다. 통계는 빈도분석을 사용했으며, 프로그램은 SPSS ver. 18.0을 사용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진으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과장의 표현 요인이 애매한 옷과 뒷모습의 사진이 없어 과장의 유무를 구분하기 난해한 옷도 있었다. 여성복 컬렉션에도 간혹 남성복이 나오는데, 분장으로 인해 남녀의 구분이 난해한 경우도 있었다. 외모의 생김새와 골격이 여성스러운 남성모델도 있었으며, 이러한 옷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킷과 코트는 구성상 총장의 길이와 폼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킷의 길이제한을 밑위선(엉덩이 선에서 5~6cm정도 내려온 지점)으로 정했다. 단, 사각형 실루엣에 속하는 박스 실루엣과 타원형 실루엣에 속하는 별론 실루엣의 재킷은 구성상 총장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타일의 재킷에는 길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과장형 재킷의 부위별 요인

현대에는 어느 요소에서 과장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과거와 현대에 과장을 하는 요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재킷이 과장된 부위를 전체적인 과장, 칼라의 과장, 어깨의 과장, 목판의 과장, 소매의 과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제일 구분 짓기 어려운 점은, 전체적인 과장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과장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어깨와 칼라가 동시에 과장이 나타난 경우이다.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과장이 나타난 경우, 하나의 아이템을 두 개의 요소로 나눠 셀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전체적인 과장에 포함시켰다. 단, 소매와 어깨는 구성상 같이 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시에 과장되었을 경우에는 과장의 경중을 확인하여 부분적인 과장으로 포함시켰다. 부위별 빈도수와 비율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과장 된 부위별 빈도수 및 비율

부위요소	빈도(개)	비율(%)
전체적인 과장	116	33.7
목판의 과장	44	12.8
칼라의 과장	61	17.7
어깨의 과장	71	20.6
소매의 과장	52	15.1
합 계	344	100

<표 4>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과장(33.7%)을 한 재킷의 비율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F/W시즌이라 부피감이 있는 퍼(fur)소재를 많이 이용하여 재킷의 실루엣을 전체적으로 크게 표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동시에 과장이 나타난 재킷과 실루엣에 의해 과장된 재킷도 이 과장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 과장 된 부위별 요소로 어깨의 과장(20.6%), 칼라의 과장(17.7%), 소매의 과장(15.1%), 목판의 과장(12.8%)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대에는 과장의 요소가 과거보다 자유로우며 소재와 형태도 더욱 다양하게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컬렉션별 과장형 재킷을 활용한 브랜드와 아이템의 요인

과거에 패션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살롱이나 궁중의 사교모임 등이었으나 현대에는 컬렉션에서 패션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컬렉션마다 참여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 특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컬렉션별로 과장형 재킷의 활용빈도를 <표 5>와 같이 연구해보았다.

2011년 F/W 시즌에는 뉴욕컬렉션(40.3%)에 디자이너들의 참가가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은 런던컬렉션(22.7%), 파리컬렉션(21.6%), 밀라노컬렉션(15.4%)순이었다.

과장형 재킷을 제일 많이 활용한 브랜드의 수도 뉴욕컬렉션(46.1%)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은 파리컬렉션(21.7%), 런던컬렉션(17.8%), 밀라노컬렉션(14.4%)순이었다.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1년 F/W 시즌에는 뉴욕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이 재킷의 과장을 통한 디자인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컬렉션별로 보았을 때도 뉴욕컬렉션(35.9%)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이 컬렉션 내에서도 재킷의 과장으로 디자인을 많이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파리컬렉션(31.5%), 밀라노컬렉션(29.5%), 런던컬렉션(24.6%) 순이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밀라노컬렉션보다 런던컬렉션에 디자이너들이 더 많

<표 5> 컬렉션별 과장형 재킷을 활용한 브랜드와 아이템의 빈도수 및 비율

컬렉션	컬렉션별 브랜드 수		과장형 재킷을 활용한 브랜드 수			컬렉션별 과장형 재킷의 수	
	빈도수(A)	(A / D)	빈도수(B)	(B / E)	(B / A)	빈도수(C)	(C / F)
파리	124	21.6%	39	21.7%	31.5%	76	21.6%
밀라노	88	15.4%	26	14.4%	29.5%	58	17.0%
런던	130	22.7%	32	17.8%	24.6%	54	15.8%
뉴욕	231	40.3%	83	46.1%	35.9%	156	45.6%
합 계	573(D)	100%	180(E)	100%		344(F)	100%

<표 6> 전체적인 과장의 컬렉션별 빈도수

	과리	밀라노	런던	뉴욕	총 빈도(개)	비율(%)	
피 소재	2	11	6	47	66	56.9	
디테일	8	0	4	4	16	13.8	
실루엣	사각형	8	6	3	3	20	17.2
	타원형	2	2	0	2	6	5.2
	X자형	5	0	0	3	8	6.9
합계	25	19	13	59	116	100	

이 참가했지만, 과장형 재킷의 디자인은 밀라노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리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들도 과장을 통한 재킷의 디자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내었다.

컬렉션별 과장형 재킷의 수에서도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데, 뉴욕컬렉션(45.6%)에서 과장형 재킷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과리컬렉션(21.6%), 밀라노컬렉션(17.0%), 런던컬렉션(15.8%)순이었다.

3. 2011 F/W 여성복컬렉션에서 나타난 과장형 재킷의 경향

2011 F/W 여성복 트렌드에서 나타난 재킷패턴의 특징은 70년대와 90년대의 회귀로 인해 재킷의 총장이 길어지고 슬림해진다.³⁵⁾ 아직까지 2009년과 2010년에 많이 나타난 80년대 스타일의 영향으로 코트에서는 오버사이즈 룩(oversize look)이 많이 나타났고, 재킷에서는 대체적으로 슬림해지고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형태에서, 어깨와 소매가 여러 형태로 과장되어 나타났다.

현대에서 재킷이 과장되는 경향을 연구해 보기 위해 전체적인 과장과 부분적인 과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전체적인 과장

전체적인 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디테일을 이용한 과장과 실루엣을 이용한 과장,

부피감이 있는 피 소재를 이용한 과장이다. 이 과장은 사용한 빈도가 많아 컬렉션별로 세분화하여 <표 6>과 같이 연구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피 소재(56.9%)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과장을 한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실루엣(29.3%)을 이용한 디자인도 많이 나타났으며 사각형실루엣(17.2%)이 제일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슬림해지고 총장이 길어지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인 과장에서는 디테일(13.8%)을 이용한 디자인이 조금 나타났다.

(1) 디테일을 이용한 과장

디테일을 활용한 전체적인 과장도 있는데 <그림 14>와 같이 재킷의 몸판에 디테일을 촘촘하게 넣고, 칼라와 어깨는 과장이 되는 형태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 15>와 같이 소재는 조직감이 크고 두터운 것을 이용하고, 큰 칼라에 몸판과 소매통을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하여 과장을 한 경우도 나타났다. <그림 16>과 같이 디테일과 형태를 이용해서 몸판과 어깨부분을 과장한 경우도 나타났다.

(2) 실루엣을 이용한 과장

재킷만으로 나타내기 힘든 실루엣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과장한 재킷도 많이 나타났다. <그림 17>은 사각형 실루엣이다. 이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깨선을 늘리고 허리선을 내려 총장도 길



<그림 14>
아 라 디스뽀지시옹,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15>
에바 민지,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16>
빅터 앤 볼프,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17>
스텔라 맥카트니,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18>
숨 브라운,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19>
마크 제이콥스,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어지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체가 상당히 커보이게 신체를 변형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림 18>은 타원형 실루엣에 가깝다. 이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서 허리를 조이지 않고 더 과장했으며, 소매 끝부분과 몸판밑단에 두께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과장하였는데, 허리가 더 과장되어 타원형 실루엣에 가까워 보인다. <그림 19>는 X자형 실루엣에 가깝다. 이 재킷의 특징은, 소매는 진동선을 내려 폼을 더 주었고, 가슴부위도 폼을 더 주었다. 가슴부위는 심지와 패드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허리 아랫부분은 프린세스라인(princess line)과 두께감이 있는 주머니로 과장하였다. 허리는 최대로 조여, 재킷에서 아워글레스 실루엣의 느낌이 나는데, 이러한 형태의 옷들이 많이 나타났다.

(3) 펄 소재를 이용한 과장

겨울시즌이다 보니 아래의 그림 외에도 부피감 있는 펄(fur) 소재를 이용하여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과장을 나타낸 작품이 많았다. 이번 시즌에 펄 소재를 이용한 전체적인 과장의 경향을 잘 나타낸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림 20>은 목 부위부터 발끝까지 원피스로 된 타이즈를 입고 그 위에 여러 소재의 펄 소재로 만들어진 재킷을 입었다.

여러 소재를 패치(patch)하여 만들어진 과장된 재킷디자인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1>은 금사를 펄 소재와 비슷하게 만들고 바지는 타이트하게 입었는데, 이렇게 부피감이 큰 원단의 재킷을 입고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어 상체를 부각시키는 디자인도 많이 나타났다. <그림 22>와 같이 펄 소재 안에 보형물을 넣어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켜 과장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2) 부분적인 과장

부분적인 과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구문제 1’에서 구분했던 몸판의 과장, 칼라의 과장, 어깨의 과장, 소매의 과장이다. 부분적인 과장은 주로 소재의 대비나 디테일의 형태에 의해 나타난다. 소재의 대비에서 과장의 요소로 쓰인 소재는 펄 소재가 주를 이뤘다. 이 과장에서 사용한 빈도가 많지 않고, 종류도 다양하여 컬렉션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몸판의 과장

몸판은 <표 7>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형태와 소재가 다양하게 과장되었다. <그림 23>과 같이 소재(56.8%)를 이용한 과장이 제일 많았는데, 펄 소재나 부피감이 있는 소재를 이용하였다. <그림



<그림 20> 아드리엔느 랑도,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1> 더 블론드,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2> 프랭크 텔,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3> 루산다 일린식,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4> 마사 마,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5> 이리나 사바예바,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표 7> 몸판을 이용한 종류와 빈도 수

형태와 소재	빈도 수(개)	비율(%)
소재	25	56.8
페플럼	6	13.7
소재 + 페플럼	3	6.8
러플	2	4.5
드레이프	1	2.3
트리밍	1	2.3
보형물이용	1	2.3
몸판을 크게하여 강조	3	6.8
허리 아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림	2	4.5
합 계	44	100

24>와 같이 페플럼(peplum, 13.7%)을 이용하여 몸판의 아랫부분을 과장되게 나타낸 것도 있었다. 페플럼 부분에 다른 소재를 이용(6.8%)하여, 소재의 대비로 인한 과장을 주는 경우도 나타났다. 흔치 않지만 <그림 25>와 같이 장식이나 가죽(2.3%)을 붙여 과장한 것도 나타났다. 그 외에 등부위에 러플(4.5%)을 이용하여 과장을 나타낸 경우도 나타났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프(2.3%)를 이용하여 과장을 한 경우도 나타났다. 그리고 보형물을 이용(2.3%)하여 어깨를 강조한 경우도 있었고, 소매는 좁게하고 몸판을 크게하여 강조(6.8%)한 경우도 나타났으며, 허리 아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4.5%)

디자인 한 경우도 있었다.

(2) 칼라의 과장

칼라는 <표 8>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재(44.3%)에 의한 과장이 주로 이용되었고, 형태는 자이언트 칼라(16.4%)가 주로 이용되었다. 칼라에서도 <그림 26>과 같이 털로 된 소재나 퍼 소재를 칼라에 매치하여, 소재의 대비로 과장을 나타내었다. <그림 27>과 같이 자이언트 칼라의 형태에 색의 대비와 배색을 이용해서 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이언트 칼라의 형태에 털로 된 소재나 퍼 소재를 이용(34.4%)하여 과장을 한 경우도 많았다. <그림 28>과 같이 트리밍(3.3%)을 이용하여 과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스탠드 칼라(1.6%)를 이용한 과장도 나타났다.

<표 8> 칼라를 이용한 종류와 빈도 수

	빈도 수(개)	비율(%)
자이언트 칼라	10	16.4
소재	27	44.3
자이언트 칼라 + 소재	21	34.4
스탠드 칼라	1	1.6
트리밍	2	3.3
합 계	61	100



<그림 26>
구찌,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7>
안토니오 베라르디,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8>
안토니오 베라르디,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29>
알라나 헤일,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30>
번미 코코,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31>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3) 어깨의 과장

<표 9>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깨부위 역시부피감 있는 소재나 퍼 소재(23.9%)를 이용한 과장이 제일 많았으며, 다른 부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디자인이 고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와 같이 퍼프슬리브(16.9%)나 드레이프슬리브(2.8%)를 이용한 경우도 나타났고, <그림 30>과 같이 보형물을 이용하여 어깨를 과장한 경우도 나타났으며, <그림 31>에서처럼 레그오브머튼슬리브(7.1%)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파워숄더슬리브(19.7%)를 이용한 경우도 나타났고, 러플슬리브(1.4%)와 턱슬리브(4.2%)를 이용한 경우도 나타

<표 9> 어깨를 이용한 종류와 빈도 수

	빈도 수(개)	비율(%)
퍼프슬리브	12	16.9
파워숄더슬리브	14	19.7
레그오브머튼슬리브	5	7.1
드레이프슬리브	2	2.8
러플슬리브	1	1.4
턱슬리브	3	4.2
소재	17	23.9
트리밍	9	12.7
보형물을 이용	8	11.3
합 계	71	100

났으며, 트리밍(12.7%)을 이용하여 어깨를 과장시킨 경우도 나타났다. 그만큼 어깨부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과장을 나타내었다.

(4) 소매의 과장

소매의 형태는 위의 그림들처럼 소매통이 모두 너럭했다. 소매부위에 과장을 준 경우, 대부분 <그림 32>와 같이 몸판은 부피감이 없는 얇은 소재를 사용하고, 소매는 부피감이 있는 퍼 소재나 털로 된 소재를 사용해, 소재(73.1%)의 대비를 통해 과장을 나타냈다. <그림 33>은 몸판은 밀착되게 하고 소매는 비숍슬리브(9.6%)를 풍성하게 이용하여 소매가 더 과장되어 보인다. 이 재킷의 소매는 <그림 32>와 소매의 형태는 비슷하나 얇은 소재를 이용하여 더 가벼워보인다. <그림 34>와 같이 소

<표 10> 소매를 이용한 종류와 빈도 수

	빈도 수(개)	비율(%)
비숍슬리브	5	9.6
레글런슬리브	3	5.8
소재	38	73.1
프릴	2	3.8
보형물	1	1.9
소매 끝 형태의 과장	3	5.8
합 계	52	100



<그림 32>
루이비통,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33>
에린 페더스톤,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그림 34>
크리스티아누
버라니,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firstviewkorea.com>)

매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형물(1.9%)을 넣어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레글런슬리브(5.8%)를 이용하거나, 프릴(3.8%)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드롭 솔더하거나 소매 중간을 잘라서 소매 끝의 형태를 과장한 경우(5.8%)도 있었다.

V. 결론

과거 복식에서는 신분상징의 도구로서 과장을 하였다. 특히 여성의 신분이 높을수록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으며 착용하기에 불편했다. 현대에도 경제의 상태 혹은 트렌드의 주기에 따라 과장의 형태가 유행한다. 과장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신분을 나타내기보다는, 점차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대의 과장형 복식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했고, 재킷에 나타난 과장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F/W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의 여성복컬렉션에서 선정된 344개의 이미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부와 계급의 상징으로 복식을

과장하였다. 왕족이나 귀족은 깊게 파인 가슴과 단단하게 조여맨 코르셋, 버팀대를 넣어 거대하고 풍성하게 부풀린 스커트, 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머리장식과 과도한 장신구를 하였다. 이는 과시욕구가 복식에 과하게 표출되어 불편하고 왜곡된 과장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둘째, 과장형 재킷의 부위별 요인을 파악한 결과, 현대에는 과거보다 과장의 요소가 자유로우며 형태와 소재가 더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있는 소재, 다양한 디테일, 실루엣 등을 이용하여 과장을 한 경우가 많았고, 부분적으로도 목판, 어깨, 칼라, 소매 등의 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디테일이나 실루엣보다는 소재를 이용하여 과장한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다른 소재를 매치하여 과장을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 도 소재가 디자인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셋째, 과장과 신체의 왜곡을 통한 디자인은 컬렉션을 막론하고 나타났다. 뉴욕컬렉션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지만, 컬렉션 전체 브랜드 수와 과장된 재킷을 활용한 브랜드 수를 대조해 보았을 때, 모든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과장의 요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과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현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르네상스시대 이후, 아위글래스 실루엣의 과도한 과장을 보편적으로 하였으며, 이렇게 과장을 한 이유는 상류사회 사람들의 부와 계급을 과시하기 위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계급이 사라진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루엣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렌드와 각자의 개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요소에서, 다양한 소재와

디테일로 과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에 과장형 복식이 사회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현대에 과장이 여성복 재킷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과장형 복식이 과거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한계점은 2011년의 컬렉션 조사를 실물이 아닌 웹사이트나 컬렉션지에서 추출한 사진 자료를 중점으로 한 점이다. 앞모습의 사진에서 뒷모습의 과장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아직 현대의 과장된 재킷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지금 조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점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재킷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템(특히 드레스)에서의 과장형 복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정흥숙 (2010). 서양복식문화사, 경기: 교문사, p.243.
- 2) 유희경, 김문자 (2006). 한국복식문화사, 경기: 교문사, pp.265-284.
- 3) 김영란 (2010). 파워 숄더 룩의 패턴구조 분석, 디자인학연구지, 23(4), p.267.
- 4) 한승수 (2010). 과장형 복식이 신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유행의 강제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5) 정선화 (2008). 컬렉션과 내셔널 브랜드 제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방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 6) 네이버 사전(검색어: 과장), 자료검색일 2011. 6. 3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50000>
- 7) 김호정, 김순자 (2005).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지, 13(6), p.884.
- 8) 네이버 사전(검색어: 유행), 자료검색일 2011. 6. 3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771200>
- 9) Fashion 전문자료사전: 일명 복식대사전 (1997).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p.1032.
- 10) 김수경 (1991). 패션사전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서울: 디자인신문사, p.174.
- 11) 이경희, 김유진 (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p.977.
- 12) 김영자 (1993). 패션디자인, 서울: 경춘사, p.51.
- 13) 위의 책, pp.56-60.
- 14) 한성지, 김이영 (2007).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44.
- 15) 이호정 (1987). 복식디자인 기성복디자인에의 어프로치, 서울: 교학연구사, pp.40-50.
- 16) 김영자. 앞의 책, p.71.
- 17) 정선화. 앞의 논문, p.22.
- 18) 김영자. 앞의 책, p.107.
- 19) 이호정. 앞의 책, pp.122-123.
- 20) 위의 책, p.122.
- 21) Davis M. L. (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 HALL, p.158.
- 22) 한승수. 앞의 논문, p.36.
- 23) 김호정 (2005).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 24) 네이버 사전(검색어: 르네상스), 자료검색일 2011. 7. 11.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X3208>
- 25) 다케우찌 도시오 (1989). 미학·예술학 사전, 안영길 (1989). 서울: 미진사, p.364.
- 26) 정흥숙. 앞의 책, p.168.
- 27) 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 범주:르네상스·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3.
- 28) 정흥숙. 앞의 책, p.198.
- 29) 김호정. 앞의 논문, p.19.
- 30) 정흥숙. 앞의 책, p.235.
- 31) 이혜림 (2000).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 32) 정흥숙. 앞의 책, p.274.
- 33)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6). 복식문화, 경기: 교문사, pp.139-140.
- 34)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2000).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368.
- 35) 퍼스트뷰코리아(자료등록일 2011. 5. 6). 기사제목: [women] 2011 F/W Jacket & Suit (자료검색일 2011. 7. 2) <http://www.firstviewkorea.com/Board/BoardView.aspx?Mcode=N&Idx=16794>

An Analysis of Exaggerated Jackets Shown in 2011 F/W Women's Wear Collections According to Details

Lee, Se Jong · Kwak, Tai Gi⁺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bstract

Exaggeration generally means expansion of materials that goes out of their own form. Its lexical definition is expressing excessively a thing or situation. Exaggeration in dressing usually means exaggeration of silhouette -- in other words, a dress with lines and silhouette that are expanded or more excessively expressed than the body. In the past, collars, shoulders, sleeves and skirts were often emphasized as a symbol of social status. Women's dress was especially more luxurious and splendid and uncomfortable to wear for those of a higher social status. The lower the social status, the more comfortable clothes were to wear due to the simple form. This was true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Exaggeration in modern times is used as an instrument to express one's beauty and own personality rather than to show social status. And today, it is important to wear a dress in concordance with the trend. How and why the exaggerating factors are different in the past and present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rough investigation of references and women's fashion collections of 2011. The influences of exaggerated dress considering social circumstance and mentality were also researched. Exaggeration of hourglass silhouette was very common after the Renaissance Period, where the silhouette served as a way of showing wealth and social class. However, we currently live in an egalitarian society without social classes. Therefore observations for the present day included exaggerations with various materials, colors and details, combining trends and one's own personality, and no expression of social status through silhouette.

Key words: exaggeration, jacket, detail, women's clothing, collections

